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개척자가 가는 길

개척(開拓)이란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가면서 주변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 인류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분야에서 개척자들의 피나는 집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척에는 처음으로 찾아내는 발견이 있고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발명이 있는데 개척한다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고난이 따른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나 세계 일주 항로 길을 개척한 마젤란 남극과 북극 길을 개척한 아문센 등의 개척정신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인류는 개척한 길을 편하게 이용해서 발전했다.

수많은 발명을 한 에디슨의 발명은 많은 사람이 불편에서 벗어나 편한 삶을 살게 발명의 길을 개척했다. 개척자가 많은 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 앞서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국제화 시대에 세계 각국에 나가 활동하는 개척자가 많다.

개척자에게는 환상이 있고 꿈

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위대한 개척자들은 언제나 길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길 만들기를 잊지 않았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길을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은 분명히 축복받은 나라이고 세계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대국이다.

오늘의 미국이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추위와 기근, 전염병과 짐승의 내습, 인디언의 습격 등의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신앙심을 토대로 한 저들은 굶할 줄 모르는 끈기와 용기로 어려운 환경 여건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부강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한 것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개척정신이 투철한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개척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태초에 길은 없었다. 사람이나 짐승이 한번 가고 간 길을 또 가면 길이 된다. 이러한 길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듬고 만들어 등산로도 만들고 농로도 만들었으며 차가 다니는 도로도 만들었다. 길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길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도 있다.

눈이 쌓인 눈길은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간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며 먼저 눈길을 만들며 간 사람이 개척자다.

눈길을 만들며 한참 가다가 뒤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눈에 새겨 있다. 눈이 쌓인 앞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태초의 길 그대로다. 나를 따라라 하지 않아도 뒤에 오는 사람은 나의 발자국을 밟으며 올 것이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살이도 먼저 간 사람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사람은 바른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한다. 먼저 앞서가고 경험한 사람을 선지자라 한다.

먼저 갔지만 무심코 갔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라 한다. 태초에 길은 없었다. 경험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 내가 가고 있다. 그 길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척된 길이라면 쉽게 가겠지만, 길이 없다면 내 힘으로 새로운 개척의 길을

만들면서 전진해 가야 한다.

새해가 되어 많은 사람은 이미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길 따라 속도를 내며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길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개척해야 할 길이라면 개척자의 정신을 수용하여 고생과 투지력을 발휘하면서 전진해가야 한다.

경자년 한해에 갈 길을 우리는 출발했다. 어떤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가? 만들어진 길을 따라간다면 편하게 가겠지만, 개척자의 길을 간다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는 길을 가고 있다.

길은 태초에 없었지만,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각종 길을 만들어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인생이 살면서 바르게 가야 할 정당한 인생길을 개척하고 선택하면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면서 후손들에게 좋은 인생길을 만들어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유지하려면 바뀌어야 한다는 개척정신으로 눈에 보이는 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생길까지도 개척한 새길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개척자의 집념으로 성공의 정상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하면서 보람 있게 살았으면 한다.

社說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거는 기대

노동계가 '코로나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겠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교섭을 통해 '상생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일기로 했다.

노동계의 제안은 고용유지와 고용 안정장 확충에 노사가 서로 협력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각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노사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곱돌고 있다. 이제는 노동계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기 바란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달 안에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서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밤샘 실무회의라도 해가면

서 속도감 있게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의 3차 추경결정예산안 심사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은 절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의 노사정위원회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참여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이해가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언제 말할지 모르고,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은 다른 때와 차원이 다르다. 매출과 수익이 줄어든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실업대란 상황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불안하다. 그럴 때는 어느 한쪽에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며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호 남 신 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 고 국 (062) 224-5800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기사제보 (062) 971-7400		Tel (02) 2238-0003
팩 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적 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6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3배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하니, 심폐소생술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

된 환자는 97%, 2분 이내면 90%, 4분 이내면 50% 이상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다. 어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남녀노소 상관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각 지역 소방서나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등 각종 기관에 신청해 배울 수 있다.

심폐소생술 실시 전에는 먼저 환자의 의식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쓰러진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보고, 환자의 몸 움직임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

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의식 상태를 확인한 후라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 환자의 등이 바로 닿도록 눕힌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은 환자의 어깨 위치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좋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회·인공호흡 2회'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인공호흡이 곤란할 시 가슴압박만으로 효과는 있다.

가슴압박은 심폐소생술 동안 심

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깎지 긴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성인을 기준으로 분당 80~100회를 유지하고 가슴이 4~5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글로 설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유튜브 등 시청각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거나 각종 기관에 신청해서 실습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투자이다.

금재용/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더더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